

60여년 전에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를 영국과 같은 생활수준으로 높이고 싶으나 영국 기자 질문에 이렇게 반문했다. “영국처럼 작은 나라를 그 수준으로 살게 하는 데도 지구의 절반이 착취당해야 했는데 인도를 위해서는 착취할 지구가 몇 개나 더 있어야 합니까?”

1987년 이후 환경 지령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은 다시 자급적 관점 혹은 생존의 관점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급적 관점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착취적이지 않으며, 가부장적이지 않고, 자급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움직임을 일컫는데 이 관점은 모든 생명체의 상호의존성을 새로운 윤리와 정치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생태여성주의와 부합합니다. 여성환경연대는 바로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3년 전에 여성 환경 활동가들로 조직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은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지역 연대를 기반으로, 여성 환경활동가의 지도력을 높이고, 「생협」, 「여성건강」, 「지방의제21」을 주제로 세 번의 ‘여성환경포럼’을 열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와 여성참여 방안’을 연구하고, ‘여성환경인 종합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 『여성을 위한 에너지 교재』를 발간하였습니다. ‘한중일 여성환경회의’를 개최하고, 8월에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지구정상회의 10주년 NGO포럼을 대비, 한국여성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의 관점에서 의제를 정리하고, 젊은 활동가들을 참가시킴으로써 국제적으로도 여성의 관점을 확산하고 연대를 꾀합니다.

‘자연·사람·음식’을 주제로 세 번째 갖는 초여름 밤의 후원 잔치는 자연을 닮아가는 행사로 그간 즐겁고 새롭고 무언가 배울 것이 있는 행사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채식요리와 조리법, 거문고와 춤의 공연에, 함께 어울리는 놀이와 의식을 담았고, 기증품 경매, 행운권 추첨 등 재미를 곁들인 전 프로그램에서 여유와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것입니다.

「초여름밤의 초대」 행사마다 참석하여 후원을 아끼지 않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새로 오신 분들로 인하여 저희는 더욱 힘이 납니다. 오늘은 우리 활동가들도 주인이 되어 보람과 격려를 함께 맛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시간되세요.

으뜸지기 박영숙 / 이정자 / 박은경 / 김상희 / 김혜정
으뜸살림꾼 이상영

김명자 | 환경부 장관

질어 가는 신록(新綠)의 향연 속에 자연이 생명력을 더해 가는 초여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자연과 사람과 음식을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환경사랑을 실천해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의 화두(話頭)는 '여성'과 '환경'이라고들 합니다. 이는 지난 세기에 터잡았던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남성 중심의 세계관을 대체하는 대안가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기계론적 자연관이 자연계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착취를 떠받치고, 가부장적 사고가 여성에 대한 억압과 지배를 합리화했던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터전인 하늘과 땅, 물과 생태계는 무차별적으로 오염되고 파괴되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전 지구적 환경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상황이 아닙니다.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우리 여성의 시각과 어머니의 강인한 힘으로 자연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실천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남성보다 지방조직이 발달되어 있어, 예컨대 체내 오염물질의 축적이 더 많을 뿐더러 아들 딸에게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물려주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여성은 실제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더 취약하고, 근원적으로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보듬게 되는 존재입니다.

환경운동에 있어 여성이 의식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먼저 깨닫고 빨리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창립 3주년을 맞는 여성환경연대는 여성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병들고 죽어 가는 환경과 생태계를 살려내는 데 힘을 보태왔습니다. 그간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데 있어 여성들이 스스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선구자 역할을 해 오신 여성환경연대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생활 속에서, 그리고 일선현장에서 묵묵히 환경사랑을 실천해 오신 여성환경연대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많은 분들이 여성환경연대의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여성환경연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 여성부 장관

안녕하세요. 여성부 장관 한명숙입니다. 오늘 여성환경연대 창립 3주년을 맞이하여 열리는 초여름밤의 잔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2년 리우회의의 '의제21'과 북경여성행동강령은 환경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주목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환경연대는 환경정책을 여성의 관점에서 분석, 개발하고, 차세대 여성환경인의 교육·훈련사업 및 국제연대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를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함께 힘을 합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환경과 개발문제를 여성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실천하는 데 더욱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하며, 평화롭고 살기 좋은 지구촌을 이루는 데 여성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축사

박영신 | 녹색연합 대표

우리들의 할머니, 어머니들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의 여성들은 가부장적 사회가 안고 있는 두수한 짓눌림과 불평등한 대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 경제위기가 닥칠 때,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장 현명하고 헌신적으로 위기를 이겨내게 한 주체들 또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힘은 '생명'을 자신의 몸으로 품어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본성이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성이 환경운동, 생명운동에 나서는 일은 아주 자연스럽고도 가치있는 일일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릇된 남성중심의 사고를 비롯하여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세상의 원리를 우습게 여기는 잘못과 편견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의 문화는 폭력을 포용으로, 이기주의를 공동체 의식으로, 물질만능주의를 생명우선의 가치로, 독재적 지배를 평등한 어우러짐으로 바꿔갈 수 있는 대안입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21세기를 생명의 세기, 여성의 세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약자이며 소외되었던 계층이면서도 이 땅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끌어온 모든 여성들의 진실된 가치가 진정으로 빛나고 발휘되는 세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 돌을 맞은 여성환경연대의 축하 잔치가 그 어느 화려한 생일잔치보다도 값지고 소중하다는 격려 말씀을 전하며 항상 새로운 발걸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현백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작고 큰 문제를 함께 아우르는 여성환경운동"

여성환경연대의 창립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환경운동을 일상 생활에서 몸으로 실천해온 주체입니다. 여성은 쓰레기 줄이거나 분리수거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소비문제와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은 '우장산 살리기 운동'과 같은 생태보존운동을 통해서 운동 주체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큰 기여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남성=생산, 여성=소비라는 이분법과 함께 여성의 역할을 일상 속의 작은 실천으로 제한하거나 보다 거시적인 환경정책 사안은 은연중에 남성의 역할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인습적인 사고를 극복하면서, 여성환경운동이 생태보호에서 한 걸음 나아가, '대안사회'의 상을 함께 만들고 실천해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미경 | 국회의원

삶의 원천인 자연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았고, 미래의 세대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소중한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는 생명의 문제이며, 조화와 발전의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무절제한 개발과 자원의 낭비로 인해 “환경재앙”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의 “환경정책”이 난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제기구 등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의제들이 채택되고 있지만, 국가정책과 지구촌 사람들의 생활 속에 “환경”을 보존하고 살리려는 실천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 문제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국가가 솔선수범하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 “환경”을 우선시하는 실천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 일에 여성이 앞장선다면 행복한 환경사회가 더 빨리 올 것입니다. 또한 환경은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가꾸고 키우는 오랜 실천이 필요합니다.

“환경”은 조화와 평등의 이념이 사회 속에 뿌리내릴 때 제대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무절제한 개발과 정복은 환경을 더욱 파괴합니다. 환경의 소중함이 사회 속에 뿌리 내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는 여성이 사회생활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남녀가 평등하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사회가 진정한 환경친화적 사회입니다.

미래의 사회는 환경과 사람, 남녀가 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될 것입니다. 이런 미래사회를 위한 다양한 실천활동에 “여성환경연대”가 더 많은 기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환경연대”의 창립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김현숙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여성환경연대의 세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갈수록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낭비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신음해 가고 우리의 먹거리, 삶의 공간의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그동안 여성의 따스한 시선으로 죽어 가는 지구환경을 살리고자 환경문제의 뿌리를 찾아내고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일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여성회는 여성환경연대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음놓고 숨쉬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십시오.

